



맨체스터시티가 12일(한국시간) 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패배로 조기에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우승을 확정했다. 2016년 7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체스터시티 지휘봉을 잡은 이후 3번째 EPL 정복이다. 사진출처 | 맨체스터시티 페이스북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더 미룰순 없다”

KBO-기장군 운영비 분담 싸고 수년째 표류... “이젠 결단 내려야할 때”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12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앞에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을 서둘러달라고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 군수의 1인 시위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2번째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오규석 기장군수, 협약이행 촉구 시위
“2014년 협약서 체결...관련 예산 확보
새 총재와 직접 만나 문제 해결 원해”
KBO “내달 실무협의회 재개할 예정
이르면 7~8월 이사회 안건 통과 가능”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KBO를 찾았다.

오 군수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앞에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실시협약 이행을 촉구
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해 10월에 이어 2번째 1인 시위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은 100년이 넘는 한국야구, 올
해로 출범 40년째를 맞은 프로야구 등 여러 기념비적

야구 역사를 한 곳에 담기 위해 기장군과 KBO가 협업
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14년 3월 실시협약서를 체결
한 기장군과 KBO는 야구박물관 부지 확보, 예산 지원
등 다방면에서 꾸준히 협업을 진행해왔다. 다만 운영비
분담 문제로 인해 최근 수년간 실무 협의가 진척을 보
이지 않아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은 표류 상태에 있다.

오 군수는 이날 “군민과 부산시민을 뵈 면목이 없
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은 수도권 도시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기장군이 유치해낸 핵심 사업이다.
수년째 표류되며 아무 진행이 되지 않는 게 너무 답답
하다”고 토로했다.

KBO는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명예의 전당
건립 추진경과를 10개 구단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
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업 시점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편의

분석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오 군수는 “우리 군은 KBO가 요구하
는 조건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두 수용할 계
획이다. 관련 예산도 확보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을 비롯한 운영비 문제를 벌써 수차례 전해 들었
다. 일단 새 총재님과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눴으면 한
다. 과거에는 협업을 하며 소통이 활발했는데, 최근에는
관련된 얘기를 직접 나눌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KBO는 한국야구의 역사를 한 곳에 담아내는 기념
비적 사업인 만큼 현안을 신중하게 점검한다는 입장
이다. 부산시와 기장군, KBO는 6월에 다시 실무협의
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비용편의분석 등을 통한 운영
비 분담이 명확해져 협업에 속도가 붙으면, 7~8월 중
에는 KBO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될 수도 있다.

정은수 기자 award@donga.com

맨체스터시티 ‘EPL 킹’

2위 맨유, 레스터시티에 저 조기 우승 확정
2년만에 패권 탈환한 펩 감독, 트레블 야망



맨체스터시티가 안방에 앉아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020~2021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2일(한국시간) 올드 트래포드
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 36라운드 홈경기에서 1-2로 패함
에 따라 맨체스터시티의 우승이 조기에 확정됐다. 이날 패
배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70)는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겨도 맨체스터시티(승점 80)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됐다.

맨체스터시티는 2018~2019시즌 이후 2년 만에 정상
을 탈환했다. 통산 7번째 우승이다. 1936~1937시즌과
1967~1968시즌 정상에 올랐고, EPL이 출범한 1992~
1993시즌 이후 5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2017~2018시즌,
2018~2019시즌 연속 우승으로 기세를 올렸던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 리버풀에 밀려 3연패에 실패했지만, 이
번 시즌 왕좌를 되찾았다.

맨체스터시티는 이미 리그컵(카라바오컵) 정상에 올라
이번 시즌 더블(2관왕)을 달성했고, 구단 사상 처음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도 올라있어
트레블(3관왕)을 노리고 있다.

2016년 7월 부임한 맨체스터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
은 3번째 EPL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축구통계 사
이트 옵타에 따르면, 잉글랜드 1부리그에서 부임 5년 만
에 3차례 정상에 오른 사령탑은 케니 달글리시(1985~
1986, 1987~1988, 1989~1990시즌) 이후 과르디올라가
처음이다. FC바르셀로나(스페인), 바이에른 뮌헨(독일)
에서도 우승을 경험한 과르디올라 감독은 12시즌 동안
9차례에 걸쳐 유럽 빅리그 우승을 이루는 성과를 냈다.

영국 BBC에 따르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가장 힘든
시즌이었다. 이번 시즌을 항상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맨
체스터시티에서 이 선수들의 감독이 된 게 매우 자랑스
럽다”고 밝혔다.

올 시즌 맨체스터시티의 출발은 불안했다. 홈 개막전
에서 레스터시티에 2-5로 졌다. 또 케빈 더 브라운의
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
생 등 악재까지 겹쳤다. 하지만 올해 들어 첫 경기부터 리
그 13연승을 질주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식경기 21연승의 대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12월 25일
기준 8위에 그쳤던 맨체스터시티는 어느새 선두로 도약
했고, 결국 정상에 올랐다. 성탄절에 8위였던 팀이 리그
우승을 차지한 것은 EPL에서 최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정말 특별하다. 모
든 제약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놀라운 일관성을 보여줬다.
선수들은 매일 더 나은 경기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선
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

1879 Golf

1879 만원 불우이웃돕기성금마련 골프대회



1879 폴리페놀 골프대회 | 대회장소 뉴서울 CC
| 대회일시 5월31일(월)
| 주최 / 주관 1879골프, 스포츠동아

동아 회원권 골프대회

| 대회장소 인서울27 CC
| 대회일시 6월29일(화)
| 주최 / 주관 1879골프,
스포츠동아



동아 회원권 골프대회

| 대회장소 인서울27 CC
| 대회일시 9월29일(수)
| 주최 / 주관 1879골프,
스포츠동아